

『完營日錄』에 나타난 19C초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관영시설 이용

여상진^{1*}
¹선문대학교 건축학부

The early 19C Jeolla-Gamsa's utilization of governing and ritual institutions in Jeonju-Bu on Wanyeong Ilrok

Sang-Jin Yeo^{1*}

¹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고는 전주부의 관영시설이 전라감사의 직무와 행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19C초에 작성된 서유구의 『完營日錄』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도계 및 전주부로의 도입과 전주부 내에서의 집무와 행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주부의 의례 준행시 조경묘, 경기전, 객사의 위계는 철저히 준수됨이 확인되며, 행례는 의례의 규정에 합치되게 실행되지만, 일부는 의례의 규정과는 다소 다른 장소가 이용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arly 19th century Jeolla-Gamsa's(全羅監司; the provincial governor of Jeolla-Do) utilization of governing institutions in Jeonju-Bu(全州府) focused on his duties and ritual ceremonies. Wanyeong-Ilrok(『完營日錄』) which is Jeolla-Gamsa's official diary written by Yu-Gu Seo(1764-1845) is closely investigated for that purpose. As a result, it is proved that some governing institutions are used differ from ritual regulations.

Key Words : Wanyeong Ilrok, Jeolla-Gamsa, Jeolla-Gamyeong, Jeonju-Bu, Governing institu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

全州는 선초 이래 감영이 설치된 뒤 감영치의 변동이 없던 행정도시로 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된 왕실의 본향이었다. 90년대 중반 감영터에 있던 도청의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 전라감영의 복원문제가 대두된 이래 복원 범위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1단계 복원의 추진이 목전에 있다.[18] 완전복원이든 규모를 축소한 상징복원이든 복원된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그 안에 담길 문화적 내용의 풍부함을 발굴하고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자산을 만드는 첩경이며 복원 성공의 바탕이 될 것이다. 전라감사의 행차와 망궐례 재현 행사는 이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회적 행사 이외에도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풍부한 문화적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음도 주목할 부분이다. 일례로 이형상이 1702년 제주목사로 있을 때 제



【그림 1】 전라감사 행차 재현 행사

주도를 순력한 내용을 그린 41면의 도첩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웹사이트는 그가 근무했던 濟州牧 官衙(2002년 복원)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재창조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耽羅巡歷圖」가 기반이 된 웹사이트
(<http://tamnamap.jeju.go.kr/>, <http://virtualjeju.culturecontent.com/>)

*교신저자 : 여상진(sjyeo@sunmoon.ac.kr)

접수일 10년 01월 18일

수정일 10년 02월 08일

게재확정일 10년 02월 24일

전주는 고지도 등 시각적 사료가 풍부하여 일찍부터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아왔다. 규장각 소장 「全州地圖」(1734-1771), 전북대학박물관 소장 「4폭 병풍 全州地圖」(1840년경), 특히 상세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完山府地圖十曲屏風圖」(19세기말)을 비롯, 규장각소장 『1872年地方地圖』의 「전주지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宦遊帖』의 「전주지도」(1882년)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하여 읍지는 많은 편이 아닌데, 관찬읍지인 『湖南邑誌』 「完山誌」(1872년경), 『全羅道觀察使營誌』(1791년경), 사찬읍지인 『完山誌』(1895) 등이 대표적이다. 도시 및 건축역사분야의 연구는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송제룡[13], 장명수[14]의 연구가 대표적이고 조선시대 감영 전체를 다룬 최영철[15]의 연구도 참조가 된다.

그런데 사료가 이들 지도와 읍지에 국한될 때 연구의 일진전은 쉽지 않다. 최근 발간된 『전라감영연구』[18]에 실린 ‘홍승재, 「전라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 역시 분석 사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선행연구와 큰 차별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러나 同書에 수록된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김현영,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감영의 구조」’는 비록 통치·행정사 측면에서 조직구조와 직제별 기능에 대해 검토한 역사학 분야 연구이지만, 『完營日錄』과 『全羅監營啓錄』 등의 사료를 활용함으로써 전라감영이 기능하는 실질적인 모습을 상당히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및 대상과 범위

본고는 도시 및 건축사 역시 문화사의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지도와 읍지에 나타나는 전주부의 관영시설이 全羅監司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전라감사 서유구가 19C초에 작성한 『完營日錄』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특정시기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일반화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구체성을 띤 생생한 자료로서, 앞서 예시한 「탐라순력도」처럼 전라감영을 포함한 전주부 관영시설에 풍부한 문화적 기반을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등의 제 규정과도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지역적 범위는 전주부로 한정하되, 관찰사의 임무는 道の 경계를 들어서면서(到界) 시작되고 이와 함께 신규 관찰사의 임무 교대와 각종 行禮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역시 대단히 중요하므로 도계 후 감영처인 전주부에 들어서기까지의 과정도 간략히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전라감사의 일기로는 일찍부터 임란 이전의 사료로 주목받아 온 미암 유희춘의 『眉巖日記』(16C 후반)가 있다.

生活日記로 작성한 것이나 전라감사 재직 기간이 참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관찰사가 도내 각 읍을 순력하며 집무하던 순력행정체제 시기였으므로 전주부 내 감영시설이 소규모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감영처에 머물며 집무한 기간도 길지 않았다. 조선후기의 유관 일기로는 관찰사의 보좌관 역할의 전라도 都事를 역임한 이위의 『卑牧齋日記』(18C 후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생활일기의 일부 기간이 전라도 도사에 해당되어 참조되는 것인데, 일기의 내용이 매우 소략하여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내용 파악에 큰 한계가 있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서유구의 『완영일록』은 감사가 직접 작성한 전라감영의 行政日記로는 유일한 것이다. 또한 이용 가능한 읍지 및 지도와 시간적 편차가 크지 않아 그의 분석에 장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완영일록』은 감사가 작성한 일기이므로 전주부 관영시설 중 감사의 집무 및 행례와 관련된 부분만이 주요한 검토의 대상으로 한정된다. 일기의 본문 및 첨부된 狀啓, 甘結, 關文 등의 문서를 통해 전주판관, 중군, 도사 등의 직무 상황을 살필 수는 있으나 이들의 집무처 등의 시설이 구체적으로 일기에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어 본 연구 내용에 포함할 수 없었음도 먼저 밝힌다.

2. 관찰사의 직무와 『完營日錄』

2.1 관찰사의 직무와 전주부의 주요 시설

조선시대 관찰사는 도내 수령을 통할하고 도내의 민정·군정 일체의 통치행정을 전제하던 한 道の 장관으로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 받는 直啓權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관찰사를 道伯 혹은 方伯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12, p.36]

관찰사의 업무 내용은 外憲기능과 方伯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외헌기능은 수령에 대한 규찰·탄핵 및 포폄을 행하는 것이며, 방백기능은 한 道の 행정장관으로서의 통치행정기능을 의미한다. 조선후기에는 외헌기능보다 방백기능이 중요시되었으며 순력행정에서 유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관찰사의 통치행정기능은 권농·구휼·試取·수세·재정·교육 및 기타의 일반행정과 죄인의 수금과 치죄, 소송의 판결 등 사법행정, 그리고 유사시 군 지휘권을 비롯한 군관의 시취와 포폄 등 평시의 군사행정을 포괄하는 것이다.[12]

전주부에는 태조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건립되어 있었고 영조대에는 전주 이씨의 위패를 봉안한 肇慶廟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도 관찰사는 月朔에 따라 매월 조경묘에 철따라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로 차례(薦新) 지내고 국왕에게 보고하며, 조경묘의 春享祭와 秋享祭에

제집사를 차정하고 헌관이되어 집행하고 보고하며, 경기전의 正朝祭, 寒食祭, 端午祭, 秋夕祭, 冬至祭, 臘享祭 때 제관을 차정하고 헌관이 되어 禮文에 따라 집행하고 헌관과 제집사의 성명을 開錄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외에도 권농행정의 일환으로 가뭄이 극심할 때에 기우제를 집행하는 등의 크고 작은 제사를 행하였으며, 또한 매년 춘추로 건지산을 奉審하는 등 관할 내 주요한 곳의 이상 유무를 자세히 살펴 그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표 1】 전주부의 주요 관영시설 (『完山誌』(1872년경))

구분	주요 시설	
監營	감사 선화당, 연신당, 응청당, 내아, 관풍각	
	업무 및 부속	포정루, 현도관, 심약당, 검률당, 비장청, 영리청, 작청, 도리청, 계서청, 의국청, 사령청, 영노청, 진상청, 소성청
	군사 시설	주필당(중영), 재가군관청(재가청), 별군관청, 교련청, 훈련청, 병방군관청, 순명수청, 군뢰청
	기타	선자청, 인청(인출방), 지소
창고	공고, 영고청, 보선고, 보군고, 진흥고, 마위고, 수성창, 고마고, 영선고, 군기고, 군수고	
	府營 (牙營)	풍낙헌(동헌), 내아, 의의정, 향사당, 이아군관청, 수첩군관청, 포도군관청, 교련청, 훈련청, 금란군관청, 府司, 작청, 전체청, 병방청, 형방청, 공방청, 소성청, 관청, 공청, 사령청, 관노청, 교방
中鎮營 (城外)	간검당, 제남정, 호경루, 재가군관청, 교련청, 토포군관청, 훈련청, 진리청, 군뢰청, 장대	

당시 전라감사 서유구의 정식 직명이 ‘全羅道 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都巡察使 全州府尹’임에서도 알 수 있듯 전라감사는 兵使와 水使를 겸하여 군사지휘권을 갖고 있었으며, 겸목제 시행에 의해 전주부윤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다. 각종 지도에는 전주부 내 감사 집무처인 전라감영 우측에 전주부 통치를 담당한 관청인 貳衙(牙營)가 자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전주부 수장으로서 전라감사 대신 전주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수령의 역할은 전주판관이 담당하였다. 또한 전주부는 전라도 5영장 중의 하나인 중영장이 파견된 곳으로 전주성 남측 외곽에 中鎮營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주부 성내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은 국왕의 위패를 모신 객사(豐沛館)임은 어느 읍지와 같으나 풍패관의 서쪽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감사의 보좌기구인 都事의 집무처 亞營(玄都館)이 자리한다. 이들 주요 시설 주변으로는 감영과 부영에 속하는 하부기구의 집무소와 창고가 즐비하였다. 이들 주요시설을 읍지를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2 徐有集와 『完營日錄』

서유구(1764-1845)의 자는 準平, 호는 楓石 또는 五費居士이다. 정조 14년(1790)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된 것은 그의 나이 70세인 1833년(순조33)으로 2년간의 전라감사 임기를 마치고 중앙에서 규장각 제학,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하였고 73세 때에는 수원유수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대제학까지 올랐다.

『完營日錄』은 서유구가 1833년(순조33) 4월 전라감사에 임명되어 4월 10일 사조한 일로부터 다음해 12월 30일까지 전라감사 직을 수행하면서 날짜별로 행한 업무와 접견한 관원 등을 기록한 일록이다. 이와 대비되는 경상감사의 기록으로 趙載浩의 『嶺營日記』(18C중반)[5]가 있으나 『영영일기』에는 그날에 행한 업무만 간략히 기록하였으므로 총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통상 상하 관청 사이에 오고간 각종 문서가 등록된 『嶺營狀啓謄錄』을 같이 참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유구가 작성한 『完營日錄』에는 그날그날 행한 업무의 기록 뒤에 수발한 각종 문서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이를 통해 전라감사의 직무와 활동 내용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완영일록』이 기록된 기간 중에 순조가 승하하고 헌종이 즉위함으로써 국휴기간에 행해지는 관찰사의 행례를 살필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다만 서유구의 관찰사직은 일기의 마지막인 12월 30일의 이듬해 1월까지 지로써 일기의 끝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서유구가 후임 관찰사에게 교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완영일록』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서 구입하여 소장 중으로 영인본이 발간되었으며, 본고 작성은 이를 참조하였다.[2]



【그림 3】 徐有集의 『完營日錄』

3. 19C초 전라감사의 到任과 行禮

3.1 도입과 교귀

서유구는 1833년(순조33) 3월 10일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1], 일기는 서유구가 4월 10일 辭朝를 위해 入侍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일로 論書를 받은 서유구는 바로 도성을 나와 노량진을 건너 시흥에 도착하여 숙소로 삼았다. 이후 화성, 진위, 성환, 천안, 廣亭, 공주, 노성을 거쳐 4월 15일 은진으로부터 여산 皇華亭으로 到界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도계 후 감사의 임무가 시작되며 交龜와 각종 行禮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기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출발하여 여산 皇華亭에 도착하였다. 道內 各邑 驛 鎮의 公禮狀을 받고 곧바로 客舍 東大廳으로 가서 잠시 쉬며 舊 觀察使가 府(礪山)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肩輿로 東軒에 가서 交龜하고 곧 到界狀啓를 封發하였다.’

‘오후에 (礪山)客舍로 돌아와서 坐起하니 列邑 수령 찰방이 延命함에 兵房裨將에게 대신 받게 한 후에 諸 수령 찰방이 차례로 入見하였다.’

『完營日錄』 癸巳(1833) 四月 十五日

위 내용으로부터 到界 行禮의 장소는 여산 皇華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산 황화정은 『東國輿地勝覽』에 군 북쪽 11리에 있어 신구 관찰사들이 交龜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소실된 상태로 송시열이 쓴 황화정이란 비석만 인근 봉곡서원에 남아있는데, 『완영일록』에서는 황화정이 도계하는 관찰사를 맞는 행례의 장소로만 이용되었고, 交龜의 장소로는 東軒이 이용되었다. 여기서 동헌은 客舍 東大廳에서 肩輿로 東軒에 이동한 점, 그리고 교귀 후에는 다시 객사로 돌아와 坐起하였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객사 동익헌이 아닌 礪山 官衙의 東軒임을 확증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도계 행례는 여산의 황화정, 교귀 행례는 여산부 동헌(현존)이 이용되었으며, 신임 관찰사에게 延命 행례는 여산 객사에서 병방비장에게 대신 받도록 한 뒤 바로 여산 객사에서 여러 수령 찰방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여산의 황화정, 동헌, 객사 등은 관찰사의 도입과 관련한 행례가 이루어지는 주요 관영시설로 특히 객사와 동헌을 오가며 행례한 점이 특징적이다.

3.2 도입시 감영처 전주부의 行禮

여산에서 도계와 교귀의 행례를 마치고 여산부 동헌을 숙소로 삼은 전라감사 서유구는 다음날인 4월 16일 조식 후 여산을 떠나 삼례역을 거쳐 감영처 全州府에 도입하였다.

‘... 오후에 (삼례역을) 출발하여 全州 五里程에 이르니 中軍 황재원, 中營將 이유목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大旗幟를 거느리고 나와 맞이하였다. (전주) 南門 밖에 이

르러 肩輿를 타고 바로 肇慶廟 改服所에 가서 公服을 갖추어 입고 廟庭에 가서 肅拜하고 奉審한 후 바로 慶基殿에 가서 肅拜하고 奉審한 뒤 宣化堂에 들었다. 中軍, 中營將과 列邑 守衛이 延命하였는데 兵房裨將에게 대신 받게 한 후에 제 수령이 차례로 入見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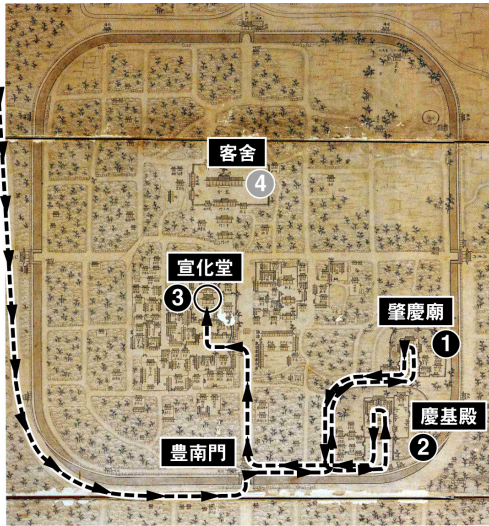
『完營日錄』 癸巳(1833) 四月 十六日

위 기록을 통해 전라감사가 전주부에 도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감사 행렬은 全州府 五里程(읍지의 拱北亭 추정)에서 맞이하였는데, 전주부는 營將이 파견되는 지역으로 중군과 중영장이 대기치를 거느리고 나와 맞이함으로써 도계·교귀한 여산에 비하여 그 行禮 규모가 더욱 컸다. 이는 참여 수령의 규모로도 확인 가능한데, 여산부 延命(4.15)에 수령 8인, 찰방 6인과 전주판관, 검찰이 참여한 것에 비하여, 전주부 延命(4.16)에는 수령 15인, 별장 1인이 참여하였다. 전주판관과 검찰은 여산으로부터 당연히 동행하며, 이후 기사를 미루어 여산, 익산, 임피, 용안 수령을 제외한 수령 및 찰방 일부는 전주부까지 동행하였다가 전주부 도입 다음날인 4월 17일 떠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주부에 모인 수령 및 찰방의 규모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전라감사 서유구의 全州府 到任 당일 入府 동선 (『1872年 地方地圖』에 표현)



【그림 5】 전라감사 서유구의 全州府 到任 當일 府內 行례 동선 (「完山府地圖十曲屏風圖」에 표현)

둘째, 五里程으로부터 전주성내로 들어오는 최단거리는 서문(沛西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쳐 남문(豐南門)을 통해 들어온다. 셋째, 肇慶廟와 慶基殿이 설치된 전주는 監司 도임시 일반적인 읍치의 행례 순서와는 차별성을 지니게 되며 제일 먼저 조경묘, 경기전 순으로 행례·봉심한다. 넷째, 이후 延命 행례에는 전패를設해야 하므로 客舍가 행례처로 이용되나 병방비장에게 대신 받게 하였고 감사는 감영의 집무처 선화당에 들어 연명을 마친 제 수령의 인사만 받았다. 이상의 행례 동선을 주요한 길이 명확히 표현된 규장각 소장 「1872年 地方地圖」 중 ‘全州府地圖’와 건물 세부가 상세한 국립전주박물관 소장 「完山府地圖十曲屏風圖」에 표현한 것이 그림 4,5이다. 이들 지도는 『완영일록』과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주요시설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유구는 다음 다음날인 4월 18일 아침 客舍에 가서 중군, 중영장, 판관 등과 함께 望闕禮를 행하였고, 禮를 마친 후 鄉校에 가서 謁聖하고 啓聖祠를 奉審하였다.[2 : 癸巳 4.18일지]

監司가 아닌 全羅道都事의 사례이지만, 『卑牧齋日記』에 나타난 李煒의 도임시 全州府에서의 행례 순서도 위와 유사하다. 이위는 1780년(정조11) 10월 19일 삼례에서 점심을 먹고 감영처인 전주에 도임하였는데, 먼저 黑團領을 입고 肇慶廟와 慶基殿을 알현하였다. 이어 迎命(延命)禮를 행하고 巡相(관찰사 서유린)에게 들어가 뵈었다. 10월 22일에는 향교에서 친히 焚香하였다.[4 : 1780.10.19, 10.22일지]

이상을 종합하여 전라감사가 감영처 전주부에 도입할

때 이용되는 주요 관영시설을 행례 순으로 정리하면, 오리정, 남문, 조경묘, 경기전, 객사, 향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봉안된 대상의 위계로 볼 때 조경묘, 경기전, 객사의 행례순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고, 향교의 행례는 객사에 행례를 마친 후에 행하였다.

4. 19C초 전라감사의 감영처 집무와 行禮

4.1 전라감사의 집무와 전주부 읍치시설 이용

관찰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앞서 2.1절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은 역사학 분야의 선행연구가 많고 본고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므로, 본 절에서는 집무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일기의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官長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집무는 통상 ‘坐起’ 혹은 ‘開坐’로 표현된다. 그러나 『완영일록』에서는 ‘좌기’의 표현이 단 두 차례 등장할 뿐이며, ‘개좌’ 역시 狀啓 등의 문서 내용에만 극소수 등장할 뿐으로 그날의 일의 적은 부분에는 거의 표현되지 않았다. 포편의 경우 좌기임이 분명함에도 ‘좌기’란 표현이 없고, 좌기처가 명기된 경우는 한 곳도 없다.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선희 연구[16]의 예비적 고찰에 의하면 좌기여부와 좌기처를 간략히 기록한 17C 일기에 비하여 18C 이후의 일기는 좌기여부를 거의 기록하지 않는다고 한 점과 상통된다. 이러한 『완영일록』의 특성상 공식적 집무가 행해지는 좌기처와 일상적 업무가 행해지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18C중반 일기인 『嶺營日記』에서 경상감사 조재호는 治罪 혹은 포편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몇 차례 감사 집무처인 宣化堂을 이용하고 일상적인 공사소지의 결재는 대부분 觀風閣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만 언급해 두고자 한다.[5]

이상 각종 공문을 처리하는 것 외에 각종 진상품을 監封하여 올리는 것도 관찰사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였다.[6 : 戶典, 進獻조] 『완영일록』에 의하면 매달 11일 정기적으로 朔膳을 진상 감봉하였으며, 매년 冬至, 正朝, 端午는 물론 대전, 세손궁, 중궁, 왕대비전의 탄일 이전에 진상품을 감봉하였다.[2 : 癸巳 5.28, 6.25, 10.12, 12.13, 甲午 4.13, 4.15, 5.28, 11.2, 12.13, 12.29일지] 진상품 감봉의 장소는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 장소가 언급된 곳은 없다. 甲午年(1834) 2월 11일자 기사에 ‘식후에 朔膳進上을 감봉하고 大風樂을 宣化堂에서 열여 판서 洪羲俊과 남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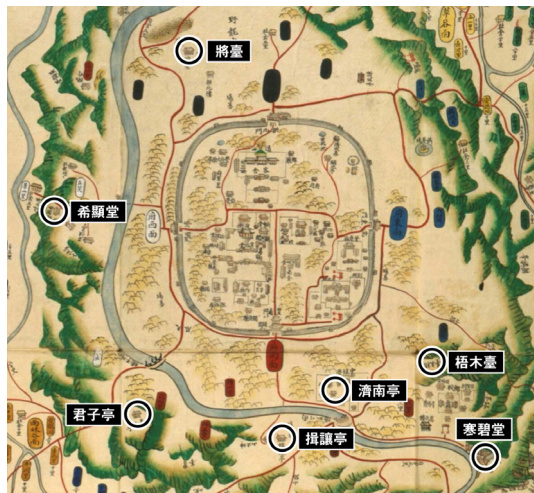
사와 會坐하고 날이 저물어 철거하였다'란 기사가 있어 宣化堂과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수령이나 차정된 회서관 등이 모여 범죄인을 조사하는 것은 在家廳(在家軍官廳)을 이용하였는데, 좌기적인 선화당이 이용되지 않는 것은 관찰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2 :甲午 4.22, 8.7일자]

한편, 『완영일록』에는 文武科의 試取행정과 朔試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바 甲午年의 試取는 左右道가 合設하여 전주부에서 행해졌다. 이를 장소별로 정리·표현한 것이 표 2와 그림 6이다. 文科試는 객사, 試射는 음양정과 중진영의 제남정이 이용되었고, 시상 또는 호궤에는 한벽당, 군자정, 오목대가 이용되었다. 또 선무도시와 마병도시는 將臺에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文武 試取 및 朔試射

장소	일자	내용
客舍	1834. 2.18, 20,29,30 3.1	文科東堂試 (左右道 合設)
希顯堂	1833. 4. 30. 1834.4.18,20	大都會 진사 백일장 希顯堂 진사 백일장
揖讓亭	1833. 4. 25.	朔試射 및 입격무사 호궤
(中鎭營) 濟南亭	1833. 7. 21 1834. 10.18	朔試射 試射 및 分賞
寒碧堂	1833. 7. 21	朔試射 施賞
君子亭	1833. 8. 11	朔試射 施賞
梧木臺	1834. 3. 16.	朔試射 호궤
將臺	1834. 10.16. 1834. 10.17.	癸巳 選武 馬兵都試 및 호궤 甲午 選武 馬兵都試 및 호궤



[그림 6] 文武 試取 및 朔試射 場所
(「1872年 地方地圖」에 표현)

4.2 전라감사의 정기·비정기 행례와 행례처

正朝와 冬至, 대전 탄일을 맞아 관찰사는 도내 으뜸 이상의 수령과 대도호부사, 목사 등의 진하전문을 국왕에게 奉上和 당일에는 遙賀儀를 행하게 된다. 이때의 행례절차는 『國朝五禮儀』의 ‘사신 및 외관이 箋文을 올리는 의식(使臣及外官拜箋儀)’과 ‘사신 및 외관이 정조·동지·탄일에 요하는 의식(使臣及外官正至誕日遙賀儀)’에 정해져 있다. 모두 전패를 正廳에 설치하고 행례하게 되므로 客舍가 주요한 행례처가 된다.

『완영일록』에서도 正朝, 冬至 및 대전 탄일의 행례처는 客舍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拜箋儀의 경우 행례장소는 모두 아래 기사와 같이 ‘宣化堂 大廳’으로 명확히 기술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아침에 箋文差使員 장흥부사가 入見하다. 箋文(대전탄일 진하전문)을 宣化堂 大廳에서 封裹 奉安하고 判官, 同福縣監, 中營將, 中軍이 함께 들어와 拜箋한 후 말을 타고 南門 밖으로 나가 祇送하고 肩輿를 타고 轎軒에 돌아왔다.

『完營日錄』 癸巳(1833) 六月 初三日

따라서 『완영일록』의 경우 遙賀儀는 客舍에서 행례하지만 拜箋儀의 경우 선화당 대청에서 행하였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향후 타 도의 사례와 비교를 요한다. 또한 전문은 南門을 통해 나가는데, 관찰사는 遠亭(五里亭)까지 전송하도록 되어있는 『국조오례의』의 규정과는 달리 남문 밖까지만 祇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甲午年(1834) 11월 25일에는 순종 승하 후 헌종의 등극에 따라 赦文이 下來하였다. 『국조오례의』의 ‘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使臣及外官迎敎書儀)’에 의하면 맞이하는 장소가 遠亭이지만 남문 밖에서 祇迎함은 拜箋하는 것과 동일하나 赦文의 봉안과 행례장소는 의례의 규정대로 客舍 正廳임을 확인할 수 있다.

登極赦文이 下來하였다. 따라서 南門 밖에서 나아가서 祇迎하고 인하여 모시고 客舍에 가서 正廳에 奉安한 후 四拜禮를 행하였다. 중군, 중영장, 판관, 고부군수, 장수 현감이 동참하였다.

『完營日錄』 甲午(1834) 十一月 二十五日

肇慶廟와 慶基殿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기적인 제사가 행해진다. 전라감사는 매년 제향 하루 전에 入齋하여 경기전에 정조제, 한식제, 단오제, 추석제, 동지제, 납향제를 직접 행하였고, 조경묘에 薦新과 함께 춘향제와 추향제를 행하였다. 또한 매달 朔望에는 『국조오례의』에

한편 국흥시 업무 장소의 이동 기록 등 여타의 감사 일기와 비교가 필요한 부분은 타 지역 감사 일기와 비교·분석을 통해 전라감사와 전주부의 특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과제로 삼는다.

참고문헌

- [1] “純祖實錄”
- [2] 徐有渠, “完營日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영인본)
- [3] 柳希春, “眉巖日記”, (朝鮮史編修會編, 朝鮮史料叢刊 “眉巖日記草”, 朝鮮總督府, 1938)
- [4] 李煒, “卑牧齋日記”, (정신문화연구회, 2000)
- [5] 趙載浩, “譯註 嶺營日記·嶺營狀啓騰錄”, 영남문화연구원, 2004.
- [6] “經國大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경국대전”)
- [7] “國朝五禮儀” (법제처 역, 1981)
- [8] “湖南邑誌”, 完山誌 (1872년경)
- [9] “完山誌” (1895년경)
- [10] “全羅道觀察使營誌” (1791년경)
- [11] “朝鮮後期 地方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 [12] 이희권, “朝鮮後期 地方統治行政 研究”, 집문당, 1999.
- [13] 송제룡, “全州古都 官衙配置의 外部空間 構成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석론, 1989.2.
- [14] 장명수, “城郭發達과 都市計劃 研究 -全州府城을 中心으로-”, 학연문화사, 1994.
- [15] 최영철, “朝鮮時代 監營의 職制와 建築的 構成의 相關性에 관한 研究”, 홍익대학교 박론, 1995.
- [16] 이선희, 「17~18世紀 忠淸地域 守令의 日常業務 研究」, 중앙대학교 박론, 2004.12.
- [17] 여상진, “朝鮮時代 客舍의 營建과 性格 變化”, 서울대학교 박론, 2005.
- [18]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전라감영연구”, 2008.

여 상 진(Sang-Jin Yeo)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건축역사, 공동주택